

# 야권발 정계개편...與 주도권 전략 고심

국민·바른 통합 투표결과 주시  
합당시 원내 고립 우려  
지방선거 영향력도 '축각'  
통합 반대파 흡수는 부정적

더불어민주당이 야권발(發) 정계개편에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당이 지난 27일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과 연계한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全)당원투표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투표 결과 통합 찬성표가 우위를 점하면 안 대표는 재신임을 얻게 되고 국민의당은 전당대회를 거쳐 바른정당과 통합 수순으로 나아가길 전망이다.

이 경우 그동안 민주당이 각종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구사했던 전략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산안 처리 과정 등에서 여소야대 국면 돌파를 위해 '국민의당 포용 전략'을 종종 구사해왔는데, 더이상 이러한 전략을 펼치기 어렵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굽직한 원내 현안들을 처리할 때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왔다. 진보적 가치를 공유하며 사실상 뿌리가 같은 국민의당과 연대를 모색해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견제하며 주요 현안을 밀어붙였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안철수 대표 체제의 국민의당과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의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신당'은 대야투쟁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야당의 색채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한국당보다 대야 투쟁 강도를 높이는 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것이다.



안희정-추미애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오른쪽)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좋은정책페스티벌 시상식에 참석, 참총은지방정부위원장 안희정 충남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표정도 일한다. 최근 한국당이 바른정당 일부를 흡수해 몸집을 불린 가운데 국민의당마저 바른정당과 통합을 기점으로 '우클릭'할 경우 민주당이 원내에서 고립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당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든,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

합이 현실화할 경우 원내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전략 수정은 필요해 보인다"며 "현재 국민의당에서 진행 중인 투표 결과를 유심히 바라보고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정계개편 움직임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민심이 인위적 정계개편에 거부감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지 못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물론 일정부분 국정 동력 상실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일각에서 언급되는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의원 흡수' 가능성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다. 몸집을 불려가는 한국당에 맞서 원내 1당 우위를 위해서 국민의당 의원 일부를 영입할 경우 민심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우려 때문이다. 호남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모두 결정한 점도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을 흡수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문대통령 지지율 67.7%

잇단 악재에 2.2%p 하락...국민의당 4.8% 최하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주보다 소폭 하락한 67.7%를 기록했다.

28일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26~27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 감소한 67.7%로 집계됐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6%포인트 증가한 25.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재천 화재 참사 책임은 라이 이어지고 일부 매체의 '청와대 직 월 탄저균 백신 접종' 보도가 확산됐다"고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중동 특사 파견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한국정책방송원(KTV)의 '진정부 보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간 지지율이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보다 1.2%포인트 하락했지만 50.8%로 여전히 1위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0.2%포인트 내린 17.6%로 2위를 차지했다. 바른정당은 0.7%포인트 오른 6.4%, 정의당은 0.6%포인트 오른 5.8%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0.1%포인트 하락하면서 4.8%로 최하위를 벗어 나지 못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與 "정부, 국민 열망 실현위해 분투"

적폐 청산·일자리 지원·사람 중심 예산 등 긍정 평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올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축복'로 상징되는 새로운 나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현 대표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2018년도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적폐청산은 국민의 여망이기에 멈출 수 없다"며 "이와 함께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고, 5·18 광주항쟁 재조사와 검경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운영에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과 여성 관리자 확대 추진,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통해 사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의 정의로운 나라를 수립하겠다는 국정철학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적폐청산은 국민의 여망이기에 멈출 수 없다"며 "이와 함께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k@

## 한국당 흥준표 체제 2기 출범

김용태 혁신위원장 등 2차 대규모 당직 인선

자유한국당 흥준표 대표 체제 2기가 28일 본격 출범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주요 당직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혁신위원장으로 김용태 의원이, 개헌특위 위원장으로는 주광덕 의원이, 국가안보특위·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장으로는 김영우 의원이, 조직부총장으로 윤한홍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홍 대표는 또 지방선거기획위 10명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7월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1차로 대규모 당직 인선을 한 데 이어 이날 2차로 대규모 당직 인선을 한 것이다.

당내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됐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와 함진규 신임 정책위원장이 처음으로 정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고, 윤리위의 제명으로 최고위원 자격을 상실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회의에 나오지 못했다.

홍 대표는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방직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이종혁 최고위원 대신 영동열 의원을 새로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경북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이철우 최고위원과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이재만 최고위원도 조만간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생현안 시급한데...여야 본회의 극한 대치

與 "분리 처리" 제안...한국·국민의당 "정치 꼼수"

여당이 연내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12월 임시국회 '빈손 종료'가 현실화하며 감사원장과의 대립과 공적 장기간화는 물론 전기요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통과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긴급회담 등 다

각도 접촉을 통해 민생입법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이것은 이전대로 원내 지도부간 효과적 논의를 더 이어가고 시급한 민생현안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은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잇달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칭, "민주당이 민생법안 운운하며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며 "요근래

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작 정치가 도를 넘어 지나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가 개헌특위 연장과 기타 사안을 분리하자는 언급은 국회 본회의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문재인 관계 개편'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최악의 정치 꼼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회견을 통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한국당을 끌어들이려는 협박을 보여야지, 제 1야당을 패싱하는 그런 꼼수를 갖고 하는 국정운영에는 협조할 수 없고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 1야당을 배제하고 개헌

논의를 꼬이게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까지 반발하면서 연내 본회의 개최를 밀어붙이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게 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 소집의 마지막 열쇠를 쥔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애초 이날 중 각 교섭단체에 본회의 개최를 통보해 합의를 압박한 뒤,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채 민주당과 국민의당만으로 본회의를 여는 방안까지 고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증-83294호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첨단우리병원에서는 척추 중점 치료합니다

- ✓ 척추관 협착증
- ✓ 허리 디스크
- ✓ 목 디스크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 수술!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